

“육성법문은 녹음기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음성은 전강 스님의 살아계신 법신이 설법하고 있는 것입니다...(중략)...여러분들이 전강 스님의 육성법문을 신심으로 잘 듣고 열심히 참선하면, 부처님의 최상승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2005년 전강 스님 사리탑 제막식에서 송담 스님의 추모법문)

“언제 때마다 듣는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은 ‘참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쉽고 편안하게 알려줘 공부에 큰 힘이 됐어요. 특히 ‘깨달으려면 크게 한번 죽어라’는 스님의 말씀은 해대심이 일어날 때마다 경쾌이 돼요. 정신이 번쩍 들죠.” (서울 전등선원에서 수행중인 김명자씨(서울 수유동))

옛 선지식의 생전 육성법문이 수행자들의 공부지침이 되고 있다. 선 수행의 준결(倅)이었던 스승들의 선종을 오롯이 마음속에서 새기고, 깨닫기까지의 체험담을 녹음한 육성법문이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육성법문으로 수행을 지도하는 수행처로는 인천 용화선원(선원장 송담), 서울 전등사 전등선원(원장 동명), 정릉 보림선원(회주 목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수행처에서는 총, 하안거 정진기간, 산책, 토요철야참선정진 등의 수행시간에 전강, 해안 스님과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을 정진대중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공부 점검과 경책의 나침반

인천 용화선원에 사는 전강 스님(1989-1975)이 열반한 지 31년이 지난 오늘도 선사의 육성법문이 흘러나온다. 매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씩, 녹취 테이프 700여 개가 1년 365일 내내 스님 선방인 법보선원과 재가자 수행처인 보살선방, 시민선방의 대중들을 위해 불어

아바타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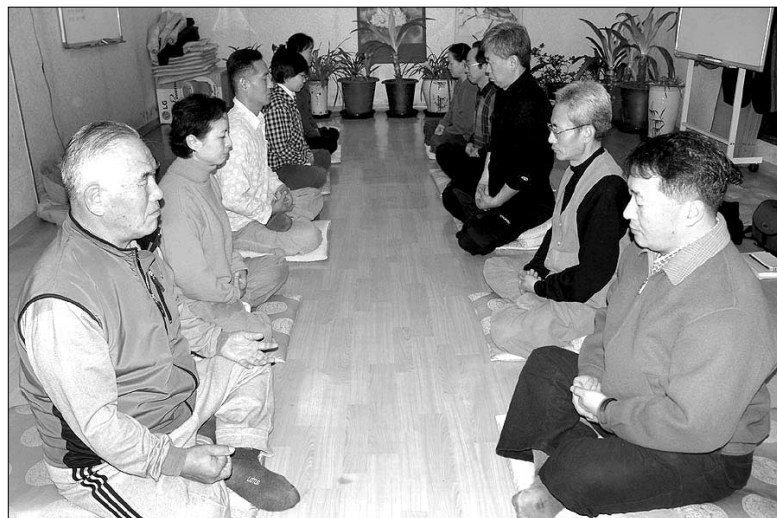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해균
전환주는 본래는 내내 자료를 보아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enter.com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기행 / 옛 선지식의 육성법문 듣고 공부하는 도량

육신은 스러졌으나 법신은 성성히 남아



‘선지식의 가뭇한 담긴 육성법문을 마음에 새긴다.’ 사진은 서울 정릉 보림선원 재가선객들이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을 듣고 곧바로 정진을 하고 있는 모습.

고 있다. 한국 현대불교의 선지식인 전강 스님의 법문을 통해 출·재가 수행자들이 자기수행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경계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육성법문 공부는 조실 추대를 거부한 채 여전히 열반한 전강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있는 송담 스님의 뜻에서 비롯된다. 전강 스님의 육성법문을 테이프를 듣고 난 뒤, 송담 스님이 대중들에게 상담법문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성북동 전등사 전등선림도 마찬가지로 해안(1901-1974) 스님의 ‘7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육성법문을 안거정진 때 30분씩 들으며, 재가수행자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때문에 전등선림은 통도사 경봉 스님과 함께 ‘동(東)경봉, 서(西)해안’으로 불리며 선종을 펼쳤던 해안

스님의 기풍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도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있다.

한국 현대거사불교의 거목인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선 수행을 잊고 있는 서울 정릉 보림선원도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을 스승 삼아 정진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아침정진, 매년 연말에 있는 1주일 철야정진 때면, ‘45분 참선-15분 포항’과 함께 백봉 거사의 <금강경> 강의를 듣는다.

토요철야정진에서는 2차(오후 10-11시, 새벽 1-2시), 1주일 철야정진에서는 총 6시간씩, 300여 개 법문 테이프를 번갈아가며 청취하고 있다.

보림선원 전근교 총무는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은 12년간 ‘금강경’ ‘유마경’ ‘선보염송’ 등의 경전과 선어록을 강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2004년에는 1

년간 녹취내용을 풀어 책으로까지 발간해 수행자들에게 수행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초월 공부일려준다

선지식들의 육성법문이 재가불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

보림선원 회주 목산 스님은 “육성법문 청취는 선지식의 정법을 100% 있는 그대로 들음으로써 법의 와전과 곡해를 경계하게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부 길을 알려준다”며 “육신은 갔지만 법신으로 남은 선지식의 법은 성성히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선지식의 육성법문은 후학들의 공부 분위기를 크게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다. 법문을 듣고 곧바로 실감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법을 이은 지도법사에게 현장에서 수행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등선원에서 화두참구 3년째인 허화정(50·서울 목동)씨는 “갈등과 싸움의 연속인 화두참구는 마치 내 마음과 슬레집이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은 찰나 찰나 찾아오는 내파함을 극복하는 힘이 됐다”고 경의를 표한다.

이처럼 재가수행자들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선지식의 육성법문은 무엇보다 자기수행을 ‘현재화’ 시킴으로써 공부경계를 점검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

매주 부원에서 보림선원 토요철야참선에 참석하는 문대우(52)씨는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은 ‘진리의 현장감’ 차원에서 재가자들에게 구체적인 실득력으로 그 가르침이 다가온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1> ‘쇠맷돌’ 비구니

정말 황당할 일을 당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된다. ‘어처구니’는 ‘맷돌’이 갈아놓은 나무 손잡이를 말한다. 아랫맷돌의 가운데 부분에서 윗맷돌과의 중심을 잡아주는 쇠심은 ‘중쇠’라고 부른다.

어처구니와 중쇠는 맷돌의 제 역할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중쇠는 늘 고정되어 분실한 염려가 없지만 어처구니는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부엌에서 급히 맷돌을 써야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또 선문답에서 중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체(體)의 의미로, 어처구니는 항상 돌기 때문에 용(用)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총림도 맷돌을 사용할 일도 잦았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맷돌마저 벗겨갈의 도구가 될 일도 당연히 생기지 마련이다.

귀종지상(歸宗智常) 선사 회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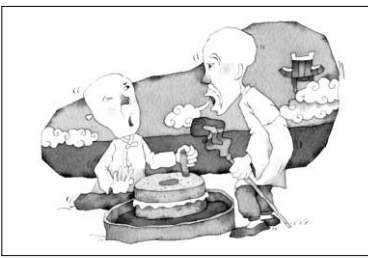
“중쇠(鐵磨)니(니)니라. 철마는 ‘쇠로 된 맷돌’이라는 뜻이다. 속성이 유(柔)체인 지라 총림에서는 ‘유철마’라고 불리는 도인이다. 자호이종(子湖麗蹤) 선사가 그 비구니의 소문을 듣고 와 대뜸 물었다.

“그대는 유철마가 아닌가?”
무쇠맷돌은 어떤 경우라도 깨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갈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니, 이름을 빌어 그 비구니의 수행경지를 추켜올려준 말이다.

“부끄럽습니다(不恥). 물론 청전에 철마 비구니가 자기를 낮춰서 겸양한 표현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당연히 반전시키는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대 이름이 쇠로 된 맷돌인데 오른쪽 면에 용(用)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비구니였다면 설사 그 이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맷돌은 물레방아와 더불어 알게 모르게 성적(性的)인 이미지가 투영

오른쪽으로 돌리는가 왼쪽으로 돌리는가?

“망상 부리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해 ‘한 방’

었던 일이다. 어떤 날자가 율려 시간에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 귀종지상 선사가 이걸 보고 한마디 던졌다. “맷돌은 네가 돌릴 수 있지만, 중쇠는 그렇지 않다. 한 마디 일러라.”

그러나 그 남자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맷돌의 어처구니는 그대로 손에 쥐고 있었지만 대답을 못했으니 그 상황이야말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된 셈이다.

당연히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쇠는 ‘중심수자(中心樹子)’라고 돼 있다. ‘가운데 있는 나무’라는 뜻이다. 쇠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그 부분을 나무로만 만들었던 모양이다.

앞뒤 문맥으로 보건대 본래 나무로 만들던 어처구니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을 듣고서 보복종전(保福從展, ?-928)이 대신 말했다.

“지금까지는 맷돌을 돌렸으나 이제는 못 돌리겠군.” 맷돌을 수행삼아 돌려야 했는데 단지 노동에 그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맷돌질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라 하겠다.

맷돌이라는 의미를 법명으로 사용한 것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음담패설인 동시에 선문답인 것이다.

아니 격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음담패설이 선문답이 된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에 그만 여자라는 장어를 일으키게 되었다.

“화상께서는 망상을 부리지 마십시오(莫顛倒). 얼굴이 붉어졌는지 그 순간에 미(迷)해 졌는지 그 대답은 이미 속어(俗語)로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자호 선사는 그럴줄 알았다고 하면서 한 방 때렸다. 그리고 말했다. “멀리서 듣기에는 공부 좀 한다고 하더니 가까이 와서 보니 틀린 바와 같지 못구나.”

그 사건이후 철마는 위산영우(771-853) 회상에서 더욱 유명정진하여 안목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 이에 위산 선사는 그 비구니를 ‘노고우(老枯牛:늙은 검은소)’라고 불렀다.

“맷돌을 수행삼아 돌려야 했는데 단지 노동에 그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맷돌질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라 하겠다.

맷돌이라는 의미를 법명으로 사용한 것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 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아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 이상 **100,000** 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 급냉에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예뵤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김근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해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3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명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 본인 거주지 ● 문의 : 050-5244-0108

수능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

제53회 **3000배 철야정진**

평소 알고 닦은 실력 100% 발휘를 위한 기도!
수능 고득점, 만점을 위한 기도!
간절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위한 기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송기를 주는 기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성스럽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100배 고맙습니다’를 끊임없이 염송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100% 기도 성취의 대 공경의 감사로 확업성취의 큰 소원을 이룩합니다.

◆ 날짜 : 2005년 11월 19일(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담뱃용 등)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면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소 : 하안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 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근지법당 021 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랑삼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산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회회전 50M 경주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nergy Healing Center
윤·기치유 명상 수련원

● 기치유는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치유법으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체의학 중 하나이다.

● 본 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기치유(에너지치료)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실질적인 치료법으로 근본적인 치유 효과가 있다.

氣는 곧 Energy이다!!!

● 누구나 배우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모든 증상을 치유할 수 있다.

● 미 국립 보건원 산하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21세기 의학은 기치유가 일반화 되는 시기로 전망하였듯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치유사 26기 수련생 모집

개강일자 : 2개월 과정 (8월 완성)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2:30~5:00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00~9:20

수련비 : 80만원
수련지도 : 윤한홍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 치료학과 겸임교수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 / (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저서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

문의 www.gichiu.com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의 02-3482-5032 원 www.gichiu.com